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호러스 G. 언더우드의 내한에 관한 연구

박 형 우*

〈차 례〉

1. 머리말
2. 언더우드의 집안 배경
3. 언더우드의 교육 배경
4. 언더우드의 선교사 임명과 내한
5.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미국 북장로회에서 임명한 한국의 첫 목회 선교사로서, 한국의 개신교의 초기 정착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던 호러스 G. 언더우드의 가족 배경, 교육 배경, 그리고 선교사 지원 및 내한 과정을 다루었다. 이 연구를 위해 미국 장로회 역사협회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1차 사료, 영국과 미국에 산재되어 있는 총인구조사, 신문 기사, 그리고 언더우드가 다녔던 뉴욕 대학교, 뉴브런즈윅의 화란개혁신학교와 관련된 자료 등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여러 사료들을 이용하였다.

그동안 언더우드에 관해 적지 않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음에도 정작 그의 집안 배경, 교육 배경 및 선교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자료가 반복되어 인용되어 왔다. 제한된 자료는 바로 1909년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언더우드가 자신의 내한과 관

련하여 회고한 것과, 언더우드의 사후 부인 호튼이 저술한 *Underwood of Korea*에 포함되어 있는 언더우드의 집안 배경을 말한다.

내한 이전 언더우드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우드의 생모 및 계모와 관련된 측면이다. 호튼이 기술한 바와 같이 언더우드의 생모는 '현모양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생모 못지 않게 계모도 언더우드 집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남편 존이 1872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1년 동안 런던에 남아 아이들을 양육했고, 특히 언더우드와 형 프레데릭이 프랑스의 가톨릭 기숙학교로 유학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언더우드의 교육과 관련된 측면이다. 어려서부터 '목사 및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언더우드는 아버지의 배려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저지 시(市)의 명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사학.

학교인 해스브룩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그로브개혁교회의 신자가 되면서 담임목사 메이본으로부터 그리스어를 사사 받았다. 언더우드가 뉴욕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의 교육열, 메이본 목사로부터 받은 사사, 당시 뉴욕대학교의 등록금이 무료였던 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더우드는 특히 웅변에 남다른 재질을 보였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뉴욕대학교의 '훌륭한 학생'으로 인정 받았다. 화란개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언더우드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메이본 목사와, 언더우드가 다니던 뉴브런즈윅 제1개혁교회의 목사 이스턴이었다. 언더우드는 이스턴을 도와 각종 부흥회에 참석했고, 2학년 을 마친 여름 방학에는 담임 목사가 없었던 폼프톤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담임 목사 이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셋째,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과 관련된 측면이다. 언더우드는 1909년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 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자신의 선교사 지원과 관련하여 회고를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자신의 선교사 지원 편지에 담긴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 연구를 통해 제기된 의문은 1) 언더우드가 한국을 알게 된 시기가 불명확한 점, 2) 자신은 인도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고 그 준비를 했다는데, 미

국 북장로회로 보낸 선교사 지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속해 있는 개혁교회 선교본부는 중국 아모이(廈門) 선교부로 파송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3) 언더우드가 과연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했었는가 하는 점, 4) 화란개혁교회에 속한 언더우드는 장로회나 감리회의 한국에 대한 선교 계획에 대해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5) 자신이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이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들 때문이었다는 회고는 너무 주관적인 것이며, 자신의 선교사 지원 편지에는 이수정의 호소에 의해 마음이 움직였다고 적었다는 점 등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연구는 새로 발굴된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 언더우드의 내한 배경 및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아직 찾지 못한 자료가 더 있을 것이고, 또 자료 해석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 도입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언더우드에 관해 극히 제한된 자료를 이용했던 기존의 연구를 넘어, 보다 명확하게 언더우드를 이해함으로써 130년 전 내한했던 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호러스 G. 언더우드, 뉴욕대학교, 뉴브런즈윅 화란개혁신학교, 윌리엄 V. 메이본 목사, 토머스 C. 이스턴 목사, 엘버트 울트만스, 이수정, 미국 북장로회, 화란개혁교회

1. 머리말

호러스 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는 미국 북장로회에서 임명한 한국의 첫 목회 선교사로서, 한국의 개신교 초기 정착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와 의사인 부인 호튼(Lillias H. Underwood, 1851~1921)의 활동은

복음 전파, 교회 설립, 성경 번역 등의 순수한 선교 활동뿐 아니라 교육, 출판 및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호튼은 언더우드가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모든 교파가 연합하여 사역을 하며, 한국의 모든 교회가 자립하고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편적으로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합’이 그의 가장 큰 이상이였다”고 회상하였다.¹⁾

언더우드는 자신의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여 많은 족적을 남겼으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처음에 발표된 연구들은 주로 언더우드의 전 생애를 다루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호튼이 저술한 *Underwood of Korea*를 들 수 있다.²⁾ 이후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호튼의 저술을 바탕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단편적인 자료를 더해 분석하는데 그쳤다. 다만 이광린(1924~2006)의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는 미국 현지를 답사하여 언더우드가 재학했던 뉴욕대학교 및 화란개혁신학교와 관련된 1차 사료를 일부 이용했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³⁾

둘째, 1차 사료를 이용하여 언더우드의 활동을 처음 연구한 것은 이만열(1938~현재)의 「선교사 언더우드의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이었다.⁴⁾ 이 논문은 미국 북장로회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1차 사료에 근거하여 가장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5권의 『언더우드 자료집』 발간으로 이어졌다.⁵⁾ 이 자료집은 언더우드가 선교본부로 보낸 편지와 연례 보고서, 각종 선교 잡지에 발표한 기고문, 그리고 연설문 등을 수록하고 있어 언더우드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로서 언더우드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원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선교 편지와 보고서 등을 담은 특정 선교사에 대한 자료집의 출판을 넘어, 총인구조사,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신문 기사 등 보다 다양한 자료, 그리고 현장 답사 등을

1) Mrs. Horace G. Underwood, "Horace Grant Underwood - Missionary, A Sketch of His Life and Work for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39, 1916, pp. 903-910.

2) James S. Gale, 「원두우 목사행장」, 『신학세계』, 1916 : 「고 원두우 목사의 행장」, 『기독교신보』, 1916. 11. 15 (4면) ;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Fleming H. Revell Co., 1918 ; 백낙준, 『원두우 박사 소전』, 연세대학교, 1959.

3)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4) 이만열, 「선교사 언더우드의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4호, 2001, 9~46쪽.

5)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V』,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2010.

바탕으로 일부 선교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⁶⁾

하지만 다른 선교사에 비해 언더우드에 관해 비교적 많은 논문(주로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선교사로 내한하기 이전의 언더우드를 다룬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⁷⁾ 또한 5권의 자료집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더우드의 가족 배경이나 교육 배경,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언더우드 자신이 1909년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 25주년을 기념하여 회상하는 가운데 선교사 지원과 관련된 약간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다.⁸⁾ 또한 언더우드의 집안 배경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언더우드의 사후 발간된 호튼의 *Underwood of Korea*가 유일하다.⁹⁾

이와 같이 한국의 기독교 전래 초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언더우드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내한 이전에 관해서는 내한 25년 후 이루어진 자신의 회고와, 부인 호튼에 의해 기술된 내용들이 1차 사료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인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국 장로회 역사협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hiladelphia)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1차 사료, 영국과 미국에 산재되어 있는 총인구조사, 신문 기사, 그리고 언더우드가 다녔던 뉴욕대학교, 뉴브런즈윅의 화란개혁신학교와 관련된 자료 등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여러 사료들을 이용하여 기존에 알려진 언더우드의 집안 배경, 교육 배경 및 내한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새로 발굴된 자료에 근거한 언더우드의 내한 배경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이 130년 전 내한하여 한국 교회의 초기 정착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언더우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6) 이선호, 박형우,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의료선교사 지원과 내한 과정』, 『역사와 경계』 84집, 2012, 147~170쪽 ; 박형우, 『알렌의 의료 선교사 지원과 내한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0호, 2014, 193~220쪽 ; 박형우, 『헤론의 생애와 내한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2호, 2015, 151~181쪽 ; 이덕주, 『스크랜턴』, 공옥출판사, 2014.

7) 이 글에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다.

8) Horace G. Underwood, "Reminiscence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August 27, 1909*, pp. 97~110.

9)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Fleming H. Revell Co., 1918.

2. 언더우드의 집안 배경

1) 언더우드의 집안

언더우드의 집안은 할아버지 토머스(Thomas Underwood, 1795~18??)까지 추적할 수 있다. 토머스는 형제인 조지(George)와 함께 런던의 플리트 가(Fleet Street)에서 출판업에 종사했는데, 주로 의학 서적을 출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신앙심이 두터운 평신도였던 그는 1817년 2월 6일 미들섹스 주 웨스트민스터의 메리번(Marylebone, Westminster, Middlesex)에서 메리 이스턴 와우(Mary Easton Waugh, 1792~1866)와 결혼하였다.¹¹⁾ 결혼 당시 메리의 부친 알렉산더는 런던 웰즈 가(街)에 있던 스코틀랜드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토머스는 메리와의 사이에 5남 3녀를 두었는데, 언더우드의 아버지 존은 7번째로 막내아들이었다. 존의 자녀들은 모두 외할아버지 알렉산더 와우가 시무하던 런던 웰즈 가(街)의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언더우드의 집안은 신앙심이 두터웠고, 특히 할아버지의 장인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목사였다.

2) 할머니 와우 집안

메리의 부친 알렉산더 와우(Alexander Waugh, 1754~1827)는 스코틀랜드 버윅 주의 고든(Gordon, Berwick)에서 빈농 집안의 막내로 출생하였다.¹²⁾ 그는 자신을 '전문 직업인'으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1774년 에딘버러대학교를 졸업하고, 1777년에 아버딘대

10) 조지가 토머스의 조카라는 기록도 있어 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플리트 가(街)는 1500년 대부터 인쇄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1702년 런던 최초의 일간지가 이곳에서 발간된 이후 인쇄업의 중심이 되었다. Howard J. Banker (Ed.), *The Underwood Families of America, Volume 2*, Press of the New Era Printing Company, 1913, p. 625.

11) *England, Select Marriages, 1538-1973*, (Thomas Underwood, Feb. 6th, 1817).

12) 알렉산더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인 애덤(Adam Waugh, ca. 1670-ca. 1732)까지 추적할 수 있다. 애덤은 스코틀랜드 버윅 주 이스트 고든(East Gordon, Berwick, Scotland)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자랐고, 그의 아들 토머스(Thomas Waugh, 1706~83)와 손자 알렉산더 역시 고든에서 살았다. James Hay, *Memoir of the Rev. Alexander Waugh, D. D.*, 3rd ed., Robert Carter & Bro., 1851, pp. 13-27.

학교를 졸업했다.¹³⁾ 알렉산더는 1779년 에딘버러의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뉴턴(Newton)의 교회에서 시무했다.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런던 웰즈 가(街) 교회로부터 부임을 요청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었던 알렉산더는 에딘버러 장로회의 허락으로 1782년 8월부터 런던 웰즈 가(街) 교회에서 시무하기 시작했다. 런던에 정착한 알렉산더는 1786년 8월 스코틀랜드 버윅 주 콜딩햄(Coldingham, Berwick)에서 메리 닐(Mary Neill, 1760~1840)과 결혼하였다.

런던에서 활동을 시작한 알렉산더는 유명한 교회 설교자로 런던 기독교인들 중에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그는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쏟아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에 적극 참여하였고, 교파간 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교인 성공회는 물론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및 회중교회 등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합 선교회를 이루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연합을 위해 알렉산더는 '기본 강령'을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렉산더는 런던선교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28년 동안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문서 선교 활동을 위해 대영성서공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부인 호튼은 알렉산더와 호러스 언더우드가 넓은 도량, 인류애, 통합심, 박애, 지도력, 재능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아버지 존과 자녀들

언더우드의 아버지 존(John Underwood, 1827~81)은 당시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겸 화학자였던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 1791~1867)를 대단히 존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그래서 존은 패러데이의 학생으로 화학을 배웠으며, 후에 인쇄용 및 필기

13) 호튼은 와우가 1770년 에딘버러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입학하였다. James Hay, 위의 책, 1851, p. 42.

14) 마이클 패러데이는 역사상 위대한 화학자·물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특히 '전기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대장간 집 아들로 런던에서 출생한 그는 쓰기와 산수만 배운 후, 제분소의 직공으로 일하면서 제분중인 과학 서적에 흥미를 느꼈고, 1813년 당시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 데이비 경의 조수로 채용되었다. 그는 이후 33년 동안 왕립연구소의 실험실 조수, 실험실 주임, 왕립협회 회원, 화학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염소(鹽素)의 액화(液化)(1823), 벤젠의 발견(1826), 전자 감응 현상의 발견(1831), 전해(電解)에 관한 패러데이의 법칙 정립(1833), 전기 화학 당량(當量)의 발견, 전자장론(電磁場論)의 기초 확립(1837), 1838년 진공 방전에 있어서의 암흑부(暗黑部) 발견(1838) 등이다. 패러데이의 이러한 연구는 맥스웰의 이론과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론과 같은 근대 물리학을 탄생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용 잉크를 개발하여 큰 명성을 얻었다.¹⁵⁾ 그는 번지지 않는 인쇄용 잉크와 안전수표용지 등을 발명한 공로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버트 공(公)으로부터 메달과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¹⁶⁾ 콜체스터(Colchester)에서 학교를 다니던 20세의 존은 당대 유명했던 독일의 리비히(Justus Freiherr von Liebig, 1803~73)와 감자병을 두고 신문 지상을 통해 논쟁을 벌일 정도로 지적 재능을 소유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존은 1855년 7월 2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메리본 교구에서 엘리자베스 그랜트 메이어(Elizabeth Grant Mair, 1828~65)와 결혼했다.¹⁸⁾ 엘리자베스는 1828년 2월 11일 아버지 존과 어머니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런던 세인트 올레이브 하트 스트리트 교회(Olave Hart Street Church)에서 세례를 받았다.¹⁹⁾ 그녀의 집안 배경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엘리자베스는 1851년 총인구조사 당시 직업이 독어 및 불어 교사로 기록되어 있어 상당한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존과 엘리자베스는 모두 3남 3녀를 두었는데, 한나(Hannah Elizabeth Underwood), 존(John Thomas Underwood), 프레데릭(Frederick Willis Underwood), 호러스(Horace Grant Underwood), 헬렌(Helen Mary Underwood), 그리고 메리(Mary Easton Underwood)의 순서였다. 호러스는 1859년 7월 19일 3남으로 4번째로 태어났다. 친척들은 생전의 엘리자베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녀는 '화를 내거나,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고 한다.²¹⁾

존은 사업에 바빴지만 주일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독실한 신자로서 그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또한 자선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 당시 잘 알려진 자

15) 호튼은 보다 구체적으로 존이 글씨가 변경되지 않은 안전수표용지(safety check paper), 75개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잉크, 복사가 가능한 인쇄용 잉크 등을 발명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존은 타이프 리본을 개량시켰으며, 미세한 표본을 만들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제작비가 너무 비싸 생계를 위한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p. 25-26.

16) 알버트 공(Prince Albert of Saxe-Coburg and Gotha, 1819~61)은 1843년부터 1861년까지 영국왕립예술원(Royal Society of Arts)의 회장이었다.

17)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18.

18) *London, England, Marriages and Banns, 1754~1921*, (Elizabeth Grant Mair, July 26th, 1855).

19)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존은 1792년 알렉산더와 프랜시스(Frances Helena) 사이의 아들로 런던 메리번 로드에서 출생하였다. *England, Select Births and Christenings, 1538~1975*, (John Mair, Oct. 27th, 1792).

20) *1851 England Census*, (Elizabeth Grant Mair, Mar. 30th, 1851).

21)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19.

선가로서 브리스톨(Bristol) 등지에서 고아원 사업을 하던 조지 물리(George Muller, 1805~98)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한다.²²⁾ 존의 이러한 모범적인 생활을 본받은 언더우드 형제자매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호러스는 특히 함께 바로 윗 형 프레데릭과 우애가 깊었다.²³⁾ 존은 언더우드 가(家)에 “불가능을 일소에 부치고 무엇이든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전한다.²⁴⁾

존은 1865년 막내 메리가 생후 2개월 만에, 그리고 아내 엘리자베스가 사망하는 큰 슬픔을 겪었다.²⁵⁾ 이어 1866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존에게 벌어졌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파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음에 틀림없다.

이 일이 있은 후 존은 닌(Caroline Nunn, ca. 1830~??)과 재혼했으며, 따라서 생모가 사망할 당시 나이가 9살에서 3살에 이르는 어린 5남매는 계모의 딸 앤(Ann)과 함께 성장했다.²⁶⁾

4) 미국 이주

1872년 존은 후에 가족을 불러들이기 위해 정착할 곳을 물색하러 단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존은 처음에는 맨해튼의 그리니치(Greenwich Village)에 거주했으나, 곧 허드슨 강 서쪽의 뉴저지 주 웨스트 호보켄(West Hoboken)으로 이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존은 뉴저지 주의 뉴더햄(New Durham)에 정착하였고, 1873년 영국과 프랑스의 가족들을 불러들였다.²⁷⁾

영국에 남아 있던 닌은 자신이 낳은 앤, 그리고 존 T., 프레데릭, 호러스 및 헬렌과 함께 덴마크 호(號)를 타고 3월 3일 뉴욕 항에 도착했다.²⁸⁾ 이 배는 프랑스 르아브르(Le

22)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25.

23) 호튼은 시편 119편을 외우는 것과 관련하여 호러스와 프레데릭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화를 소개하였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21.

24) "Laughs at impossibilities and says it shall be done."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26.

25) Howard J. Banker (Ed.), 앞의 책, 1913, p. 625.

26) 닌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 엘리자베스와 앤을 두었는데, 앤을 미국으로 데려갔다. 존과 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1880년 미국 연방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앤은 나이가 28세, 직업은 교사, 출생지는 영국으로 되어 있다. *188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John Underwood, June 26th, 1880).

27) 뉴더햄(New Durham)은 지금의 노드 버겐(North Bergen)이다.

28) 큰 딸 한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1872년 부친과 함께 먼저 미국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Year: 1873 : Arrival: New York, New York*; Microfilm Serial: M237, 1820~1897; Microfilm Roll: Roll 372; Line: 5; List Number: 156.

Havre)를 떠나 영국 런던을 경유하여 뉴욕 항에 도착하는 항로에 취항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던 프레데릭과 호러스가 르아브르로 가서 배를 탔는지 런던으로 가서 배를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다른 식구들은 런던에서 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존이 정착한 허드슨 강 서쪽 지역은 네덜란드의 초기 이민자들이 개척한 곳이었고 네덜란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언더우드 가족이 화란개척교회(Dutch Reformed Church)에 다니게 된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74년 12월 5일 아버지 존, 존 T., 프레데릭, 호러스, 그리고 헬렌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로브개척교회(Grove Reformed Church)에 적을 올렸다.²⁹⁾ 이후 호러스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기 전까지 화란개척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한편 존은 1874년 자신의 창고에서 필기용 잉크를 생산하는 회사(John Underwood and Company)를 설립하였고, 이때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1년 동안 주급 5달러로 주물공장에서 일을 했던 존 T.가 합류하였다. 이 회사에서는 후에 먹지와 타자기용 잉크를 생산하였다.

존은 언더우드가 뉴욕대학교에 입학한지 2년이 지난 1879년 인후암이 발병하였고, 여러 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으나 1881년 6월 7일 사망하여 그로브개척교회의 묘지에 묻혔다.³⁰⁾

3. 언더우드의 교육 배경

1) 미국 이주 이전의 교육

영국 런던에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파산하여 생활이 어려웠음에도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호러스는 집 근처의 콕스 공립학교(Cox's Collegiate Institute)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다.³¹⁾ 더 나아가 존은 1869년, 10살인 호러스와 형 프레데릭을 프랑스 불

29)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23.

30) 교회 묘지관리소의 기록에 의하면 언더우드 집안의 묘역에는 아버지 존(1881년 당시 54세), 형 프레데릭(1891년 당시 35세), 호러스(1916년 당시 57세), 누나 한나(1938년 당시 82세), 그리고 레베카 C. 닐(1915년 당시 65세, 계모의 친척으로 추정), 윌리엄 B. 언더우드(1926년 당시 생후 2일) 등이 매장되어 있다. 이 묘역에는 헨리 물링 부부(Henry and Anna Muling)의 묘비도 있는데, 언더우드 집안과 어떤 관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Record of Grove Church Cemetery*.

31) 이 학교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Horace G. Underwood, "Personal Record of Horace Grant Underwood", (Nov. 3rd, 1914),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로뉴 쉬르 메르(Boulogne-sur-Mer)의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Ecole Dié)로 유학 보냈다. 불로뉴 쉬르 메르는 영국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 북부의 항구로서 런던과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 둘을 외국으로, 그것도 가톨릭 계열의 학교로 유학을 보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행히도 디에 교수는 친절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으며, 프레데릭과 호러스도 그를 존경했다. 더욱 디에는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기에 언더우드 형제는 신교도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 대한 일종의 포용과 너그러운 감정을 갖게 되었다.³²⁾

2) 해스브룩학원

아버지는 목사 및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어린 언더우드가 다른 형들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게 하고 싶지 않아 미국으로 이주한 후 저지 시(市)(Jersey City)에 있던 해스브룩학원(Hasbrouck Institute)에 입학시켰다.³³⁾ 이 학원은 저지 시(市)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주요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열었던 사립학교였다.³⁴⁾ 교장 워싱턴 해스브룩의 노력으로 이 학교는 저지 시(市)의 명문 학교로 발전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저지 시(市)의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언더우드가 다녔던 당시 이 학교는 설비나 교육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저지 시(市) 최고의 명문 학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학제나 교과 내용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언더우드는 이 학교에서 수학한 후 바로 대학교로 진학하지 않았다. 1874년 12월 5일 그로브개혁교회에 적을 올린 언더우드는 담임 목사인 메이본(William V. V. Mabon, ??~1890)

32) 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남긴 일화 중에 언더우드 형제가 취침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자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이 소동을 일으켰지만, 결국 모두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호튼의 책에 잘 기술되어 있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p. 20-21.

33)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23.

34) 이미 뉴욕 주 소거티스(Saugerties)에서 사립학교를 세운바 있었던 워싱턴 해스브룩(Washington Hasbrouck)은 1876년까지 이 학교에서 활동하다가 트렌턴에 있는 뉴저지 주 사범학교(지금의 뉴저지대학)의 교장으로 부임했다. 1856년 개교 당시 이 학원은 웨인 가(街) 근처의 머서 가(街) 53-55에 위치한 작은 건물에서 시작했지만, 언더우드가 졸업한 후 크게 확장되었다. 1880년 여자부를 병설하였고 저지 시가 크게 확장되면서 1893년 9월 해리스 가(街)와 만나는 크리스텐 가(街) 모퉁이로 이전했는데 당시 학생 수는 305명이었다. 저지 시가 공립교육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공립학교의 건물 확장을 추진하면서 저지 시 교육위원회가 해스브룩학원을 사들이면서 이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의 지도를 받으며 대학 입학에 준비하였다. 당시 소년들은 전도 사업에 활발히 참여했는데, 언더우드도 유니온 힐(Union Hill) 등에서 전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한다.³⁵⁾ 언더우드는 메이븐으로부터 받은 희랍어 책을 6개월 만에 독파하여 대학 입학에 필요한 모든 그리스어를 익혔다. 결국 언더우는 1877년 6월 12일자로 뉴욕대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았다.³⁶⁾ 뉴욕대학교의 입학등록부에 의하면 언더우드의 직전 교육은 '사숙(私塾)'이었다.³⁷⁾

3) 뉴욕대학교

뉴욕대학교는 특정 교과를 표방하지 않고 1831년 개교한 사립 명문 대학교였다.³⁸⁾ 언더우드가 입학할 당시 뉴욕대학교에는 문리과, 의과 및 법과가 있었으며, 언더우드가 입학한 4년제의 문리과는 등록금이 무료였다. 당시 뉴욕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산술과 영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함께, 지리, 미국 역사, 그리고 그리스 및 로마 고전 등에 대한 지식이었다.³⁹⁾

당시 뉴욕대학교의 주요 학사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⁴⁰⁾ 한 학년은 세 학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사 일정은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했으며, 강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 혹은 2시까지 진행되었다. 평가는 학년말에 실시되는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절대 평가제였다.

35) 호튼은 당시 언더우드와 친구들이 술집에서 전도를 했던 일화를 기술하였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p. 23-24.

36) 호튼에 의하면 언더우는 뉴더햄에서 학교까지의 7마일을 매일 걸어서 왕복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허드슨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없었으므로 언더우는 뉴저지의 위호켄(Weehawken)이나 호보켄(Hoboken)에서 맨해튼까지 왕복하는 페리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24.

37) 원문은 'Private'이다. *Class Merit Book, July 1835~June 1888*, Vol. 4, New York University.

38) 호러스가 입학할 당시 학교 명칭은 'The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이었다.

39) 이외에도 2차 방정식까지의 대수학, 평면 기하학, 라틴어 - 카이사르의 갈리아전기(Caesar's Commentaries),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Virgil's Aeneid), 키케로의 연설(Orations of Cicero), 살루스티우스의 카틸리나(Sallust's Catiline), 살루스티우스의 유구르타(Sallust's Jugurthine War), 혹은 베르길리우스의 목가(the Eclogues of Virgil), 아놀드의 라틴어 작문(Arnold's Latin Prose Composition), 그리스어 - 크세노폰의 아나바시스(Xenophon's Anabasis), 호머의 일리아드 및 운율학 등이었다.

40) *Catalogue of the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 1876~77*, June, 1877, Richard Handy, Printer, 62 and 64 Duane Street.

언더우드가 뉴욕대학교에서 수강했던 과목은 1학년 때 수학, 희랍어, 프랑스어, 수사학, 웅변, 라틴어, 2학년 때 고전, 경제학, 웅변, 화학, 삼각법, 희랍어, 분석기하학, 라틴어, 영문학, 3학년 때 독일어, 지식철학, 자연철학, 웅변, 현대사, 라틴어, 천문학, 논리학, 희랍어, 4학년 때 윤리학, 라틴어, 희랍어, 웅변, 지질학, 헌법, 식물학, 국제법, 분석화학이었다.⁴¹⁾ 언더우드가 4년 동안 거둔 평균 성적은 87.7점으로서 중상위권에 속하였으며, 졸업생 22명 중 10등이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다. 언더우드는 전 학년에 걸쳐 웅변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삼각법, 화학, 분석기하학, 자연철학, 천문학, 국제법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대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훌륭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3학년 때 웹스터 웅변상을 받았으며, 1881년 6월의 졸업식 때에는 10명의 연설자 중의 한 명으로 선발되어 'The Valley of Glencoe - As it is and as it was'란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문학 단체인 필로머시언 소사이어티(Philomathean Society)의 편집인 및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학생 소식지인 *The University Quarterly*의 편집인으로도 활동했다. 이외에도 델타 업실론 사교클럽(Delta Upsilon Fraternity)의 회원이었다.⁴²⁾

언더우드는 1881년 6월 23일 뉴욕대학교를 졸업하여 문학사의 학위를 받았다.⁴³⁾ 입학 당시 문리과에는 52명의 학생이 있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 2학년 때는 32명, 3학년 때는 28명이었고, 결국 22명만이 졸업하였다. 1882년까지 문리과를 졸업한 사람은 모두 87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법률가가 된 사람이 144명, 성직자가 141명, 그리고 의사가 83명이었다.⁴⁴⁾

4) 뉴브런즈윅 화란개혁신학교

언더우드는 1881년 9월 뉴브런즈윅의 화란개혁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l

41) *Matriculation Book, 1853~1893*, Vol. 2, New York University.

42) 델타 업실론 사교클럽은 '신앙 운동과 봉사 활동이 중심이 된 대학 서클'이 아니라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다지는 '사교클럽'이다. 호튼에 의하면 언더우드가 입학할 당시 회세가 매우 약했던 이 사교클럽이 언더우드의 정열적인 활동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호튼은 어느 날 언더우드와 다른 사교클럽 회원이 뉴욕 시내에서 다른 대학 학생들에 둘러싸였고 봉변을 당할 뻔 했으나 모면했던 일화를 소개하였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p. 24-25.

43) Commencement Week, 1881.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York.

44) *A General Catalogue of the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s of Arts and Science*, D. O Crawford & Co., No. 62 Fulton Street, 1882, p. 55.

Seminary)에 입학하였다.⁴⁵⁾ 3년제인 이 신학교는 교과와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했으며, 모든 학생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대학 졸업장을 제시해야 했다. 언더우드가 입학할 당시 신학교에는 교회사가 전공인 우드브리지(Samuel M. Woodbridge, 1819~1905), 성서문학이 전공인 데 위트(John De Witt), 목회신학과 수사학이 전공인 데마레스트(David D. Demarest, 1819~98) 및 논증신학이 전공인 메이본 등의 교수진이 있었다.⁴⁶⁾ 특히 메이본은 언더우드가 뉴욕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그로브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학생은 1학년이 16명, 2학년이 10명, 3학년이 19명으로 전체 학생 수는 45명이었고, 규정에 따라 언더우드는 헤르초크홀(Hertzog Hall)에서 기숙하였다.

언더우드가 신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1학년 때 히브리어와 희랍어로 된 예언해석, 성서지리학, 고대성서학, 종교사, 성사(聖史), 수사학, 작문, 설교학, 2학년 때 논증신학, 교회사, 교회행정, 성서비평, 카르테이어 및 시리아어, 예언해석, 바울 서간의 해석 연구, 예배학, 교리 교수학, 작문, 설교학, 3학년 때 논증신학, 교회사, 목회신학, 예언 해석, 바울 서간의 해석 연구, 논문, 작문, 설교학, 개혁교회법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하는 사도 서간 전체를 주해하도록 했다. 신학교는 성적을 합격과 불합격으로 평가했으며, 언더우드는 모든 과목에서 합격하여 졸업하였다.

당시 개척교회는 2학년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하에 방학 중에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3학년이 되면 교수의 지도하에, 혹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의 지도하에 전도 혹은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1학년 과정을 끝낸 언더우드는 1882년 여름 지방을 돌아다니며 책을 팔았는데, 상당한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호튼에 의하면 언더우드는 이 여행에 대해 말년까지도 즐겁게 회상하곤 했다고 한다.

언더우드는 3학년이 되기 직전인 1883년 여름 방학 때, 4월 이후 시무하는 목사가 없던 폼프톤 개척교회(Pompton Reformed Church)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었다.⁴⁷⁾ 당시 교회의

45) 이 학교는 뉴브런즈윅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로 이름이 바뀌었다.

46)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the Theological Seminary of the Reformed (Dutch) Church in America, New Brunswick, N. J. 1881~'82*, J. Terhune's Press, 31 Albany Street, 1881.

47) 쟈슨(John N. Jansen)이 1883년 4월 4일 떠난 후 폼프톤 개척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없다가, 1년 반이 지난 1884년 10월 7일 콤머스(T. J. Kommers)가 부임하였다. 호튼은 언더우드가 3학년 때에도 폼프톤 개척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고 기술했으나 교회 기록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Convened at New Brunswick, May 1, 1883*, The Unionist-Gazette Printing House, 1883, p. 31 ;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Convened at Warwick, N. Y., May 5, 1885*, The Unionist-Gazette Printing House.

보고서는 “목사가 없었던 우리 교회는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하지 않았고, 신학교 학생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29명의 신자가 더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⁴⁸⁾ 여기서 신학생은 언더우드였으며, 그의 타고난 전도 능력을 알려주는 일화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언더우드는 온 힘을 쏟아 전도 사역을 벌이자 폼프톤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교회 조직이 아니라 한 가족 같았다고 한다.⁴⁹⁾

언더우드는 학업에 집중하는 한편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심정으로 신학교에서의 학창 시절을 보냈다.⁵⁰⁾ 학창 시절 언더우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이 다니던 뉴브런즈윅 화란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스턴(Thomas C. Easton)이었다. 언더우드는 새벽 및 저녁 기도회, 예배 후의 모임 등을 통해 열정적으로 교회의 부흥에 나선 이스턴을 적극 도왔다. 언더우드는 부목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느 일요일에는 7~8번의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스턴도 “부흥회에서 언더우드는 나의 가장 유능한 조력사요 동역자였다”며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적극 추천한 바 있다.⁵¹⁾

호튼에 의하면 신학생 언더우드는 뉴브런즈윅에 선교지부를 세우려는 구세군을 적극 도왔다고 한다. 당시 화란개척교회 같은 보수적인 교회는 구세군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음에도 언더우드는 이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집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다. 언더우드에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교파, 사회 계층 혹은 인종이 아무런 장벽이 아니었던 것이다.⁵²⁾

1885, p. 32.

48)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Convened at Warwick, N. Y., May 6, 1884*, The Unionist-Gazetteer Printing House, 1884, p. 29.

49) 언더우드가 해외 선교에 나서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신도들의 반대에 대해, 한 노부인은 “언더우드는 어렵지 않게 그 일을 완수할 것이며, 사랑으로 이교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다”라며 옹호했다고 한다. 언더우드는 수시로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원금의 중요성을 역설하자, 그렇게 되면 언더우드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신도들이 반대하였다. 이에 언더우드는 “설령 급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며 반대하는 신도들을 설득하여 오히려 해외선교 후원금이 크게 증가했고, 학교로 돌아갈 즈음 신도들은 언더우드에게 2배의 급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언더우드는 인근 마을을 순회하며 설교를 했고,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아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는 등 큰 부흥을 일으켰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31-33.

50)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27.

51) Thomas C. Easton (New Brunswick, NJ),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July 5th, 1884).

52) 호튼은 언더우드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을 실천했다고 설명하였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p. 28-29.

5) 언더우드의 졸업 후 교육

1881년 언더우드는 화란개혁신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9월 20일 시작하는 럿거스대학(Rutgers College)의 대학원 과정에도 등록했다.⁵³⁾ 그런데 이 과정은 현재와 같이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럿거스대학은 다음의 여러 조건 중 한 조건에 해당하는 문학사 학위 소지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졸업 3년 후에 문학석사를 수여할 수 있었다.⁵⁴⁾ 그 조건이란 첫째, 신학교, 법과대학, 의과대학, 혹은 변호사 혹은 의사 면허증 등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둘째, 교수진이 인정할 만한 기타 학문적 진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셋째, 이수 받은 교육 과정에 대한 교수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수진이 인정하는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었다. 언더우드의 경우 특별히 강의나 연구 논문 작성이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문학석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더우드가 입학할 당시 학생은 15명, 1882년 9월 20일 시작하는 이듬해에는 14명이었는데, 1883학년도에 언더우드는 대학원 학생 명단에 빠져 있다. 그 이유는 럿거스대학이 대학원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었다.⁵⁵⁾ 즉, 본인의 신청이 아닌 실제 성과에 의해서만 석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강화하면서 첫째, 럿거스대학에서 최소한 1년 동안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은 물론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둘째, 럿거스대학 출신으로서 신학교, 법과대학, 의과대학, 혹은 변호사 혹은 의사 면허증 등의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셋째, 특정 분야의 교육이나 저술이 뛰어나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로 국한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1년을 남겨두고 석사학위 신청의 길이 막혀버린 언더우드는 아직도 자신이 럿거스대학에 입학할 당시처럼, 신청에 의해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던 뉴욕대학교로 적을 옮겼다.⁵⁶⁾

53)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는 화란개혁신학교에 인접해 있는 뉴저지에서 가장 큰 고등 교육기관이다. 이 대학은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1770년 퀸즈 칼리지(Queen's College)란 이름으로 개교했으며, 남자들만 입학할 수 있었다. 미국 독립 이전에 정식 학위를 수여할 수 있었던 9개 대학 중에 8번째로 설립되었으며, 1825년 독립전쟁의 영웅인 헨리 럿거스(Henry Rutgers, 1745~1839) 대령을 기념하기 위해 교명을 바꾸었다. 1945년 뉴저지 주에 의해 공립(주립) 대학교로 되었다.

54)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Rutgers College, New Brunswick, N. J., 1881-'82*, pp. 7, 35 ;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Rutgers College, New Brunswick, N. J., 1882-'83*, 1882, p. 7.

55)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Rutgers College, New Brunswick, N. J., 1884-'5*, 1884, p. 46.

56) 뉴욕대학교에 연구를 위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것은 1886년 10월이었다. Theodore Francis Jones, *New York University, 1832:1932*, Th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33, pp. 139-140.

그리하여 언더우드는 1884년 6월 19일 뉴욕대학교의 졸업식에서 문학석사의 학위를 받았다.⁵⁷⁾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는 뉴욕 시에 있는 협동개혁교회(Collegiate Reformed Church) 중의 한 곳에서 목회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⁵⁸⁾ 조건은 연봉 1,500달러에, 언더우드의 의학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요일에 설교를 한 번하고 주중 기도회를 주관하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해외 선교에 나서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다가 결국 이를 수락하는 편지를 보내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회를 찾던 중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로 임명되면서 요청을 거절하였다.

4. 언더우드의 선교사 임명과 내한

1)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⁵⁹⁾

1882년 5월 한국이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한 이후 구미의 여러 개신교회는 한국에 대한 선교를 준비하였다. 조선에 대한 선교 가능성은 일본에서 이수정에게 세례를 주었던 녹스(George W. Knox, 1853~1912)의 보고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보고의 중요성을 감지한 총무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 1826~1908)는 1883년 5월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들에게 중지를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보고가 들어왔고, 중국에서는 한 동안 별 다른 반응이 없다가 12월 14일 중국 지난푸에서 활동하던 헌터(Stephens A. Hunter)와 리드(Gilbert Reid, 1857~1927)가 한국행을 자원했다. 하지만 해외선교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선교는 일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이수정은 '충격과 불신'을 느끼고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12월 13일자로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⁰⁾ *The*

57)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 Catalogue and Announcements 1884-1885*, May 1885, p. 46.

58)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 33.

59) 이선호, 박형우, 「19세기말 미국 북 장로회의 한국 선교 추진 과정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제157집, 2012, 277~323쪽; 박형우, 「알렌의 의료 선교사 지원과 내한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0호, 2014, 193~220쪽; 박형우, 「헤론의 생애와 내한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2호, 2015, 151~181쪽.

60) Rijutei, "Rijutei to the Christians of America, Greeting," *The Missionary Review*, 1884, pp.

Missionary Review 1884년 3월호에 실린 이 편지는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의 실행위원이었던 맥웰리엄스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 개시를 위해 5천 달러를 기부하였다. 한국으로 파송할 책임자를 찾는 중에 1884년 4월 28일 의사 헤론이 한국의 첫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헤론은 1884년 가을쯤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헤론과 함께 파송될 목회 선교사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2)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과 임명 과정

언더우드가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접한 것은 1882-3년 겨울이라고 회상한 바 있다. 당시 화란개혁신학교의 학생으로, 후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알버트 올트만스(Albert Oltmans, 1854~1939)가 '은자의 나라' 한국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려는 희망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⁶¹⁾ 당시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기로 하고,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는 등 준비하고 있어 이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에 나서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바로 이수정의 호소였다. 언더우드는 1884년 7월 10일자로 작성된 선교사 지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는 해외 선교 사역에 나서려 하고 있지만 몇 개월 전에 한국인들 중에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는 이수정의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 어느 선교지로 가야하는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심장은 이 호소에 의해 꿈틀거렸으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조마조마하며 주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의) 선교본부에 파송해달라고 억지로 요청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금의 부족으로 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의 선교본부에 요청해야 하는가? 혹은 다른 선교지로 파송되어야 만 하는가? 혹시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⁶²⁾

145~146.

61) Horace G. Underwood, "Reminiscence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August 27, 1909*, p. 98.

62) Horace G. Underwood (New Durham, NJ),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July 10th, 1884).

이수정의 글은 *The Missionary Review* 1884년 3월호에 실렸는데, 언더우드가 한국행을 고려한 것도 이즈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으로 파송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던 중 자신이 속해있는 개혁신교회에 파송을 요청했으나 개혁신교회는 기금이 부족하고 한 명의 선교사로 새로운 선교지부를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⁶³⁾ 하지만 한국행을 두고 계속 고민하던 언더우드는 마침 미국 북장로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할 목회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⁶⁴⁾

이에 대한 기도와 고민 끝에 저는 하루하루, 그리고 매주일 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다 보면, 제 차례가 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몇 주 전에 저는 장로회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선교부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미 의로 선교사는 임명했고, 그와 함께 파송할 안수 받은 목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⁶⁵⁾

당시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는 선교사 임명을 위해 지원자에게 몇 가지 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는데, 언더우드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⁶⁶⁾

첫째, 지원자 자신이 작성한 지원 편지(후에 규격화된 지원 양식이 만들어 짐)였다. 이 편지에는 지원자의 나이, 건강, 가족, 어학 능력, 기혼이나 미혼 중 어느 상태로 파송되기를 원하는지, 선호 사항, 희망하는 사역지, 신앙 경력, 선교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 등 선교사가 지원자에 대해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다.

둘째, 각종 추천서 및 증명서였다. 우선 학력과 관련하여 뉴욕대학교(크로스비 전 총장,

63) 그런데 개혁신교회 교신총무 콕은 10 여년 후에 '언더우드가 한국행을 지원한 것이 1884년 2월'이라고 했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일차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언더우드는 자신이 한국행을 2번 요청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Henry N. Cobb, *Century of Missions in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1796~1896*. Board of Foreign Missions, Reformed Church, New York, ca. 1896, p. 16 ; Horace G. Underwood, "Reminiscence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August 27, 1909*, pp. 98-99.

64) Horace G. Underwood, "Reminiscence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August 27, 1909*, p. 99.

65) Horace G. Underwood (New Durham, NJ),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July 10th, 1884).

66) 이선호, 박형우, 「1880년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지침서에 대한 연구」, 『신학논단』 제71집, 2013, 275~303쪽.

코클리 수학 교수, 베어드 그리스어 및 문학 교수)와 신학교 교수들(우드브리지, 데마레스트, 메이본)의 편지가 선교본부로 보내졌다.⁶⁷⁾ 그리고 교회와 관련하여 개혁신교회의 추천서(이스턴, 뉴브런즈윅 제1개혁신교회 목사)를 받았다.⁶⁸⁾ 마지막으로 언더우드의 건강 상태에 관한 주치의사의 소견서도 보내졌다.⁶⁹⁾

언더우드의 한국행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개혁신교회의 해외선교본부 교신총무(Corresponding Secretary)인 콕(Henry Nitchie Cobb, 1834~1910)은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로 편지를 보내 언더우드를 적극 추천하였다.

우리 선교본부는 그를 중국의 아모이(廈門) 선교부로 파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만일 신의 섭리에 의해 어떤 방도가 생긴다면, 그는 한국으로 가려는 자신의 원래 의지를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특권이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 본부가 설립하려는 한국 선교부에 그가 적합한 인물로 판단한다면, 비록 제한된 범위일지라도 새로 열리는 왕국에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에 있어 그는 자신과 관계되는 선교본부와 교회를 만족시킬 것이며, 우리는 그와 [그가 설립할] 선교부가 하느님의 손에 의해 성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⁷⁰⁾

언더우드의 선교사 임명을 위해 보내진 편지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 입학에 위해 언더우드를 지도하고 신학교에서 언더우드를 가르친 메이본의 편지와, 뉴브런즈윅 제1개혁신교회의 목사였던 이스턴의 편지라 할 수 있다.

우선 메이본은 자신이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준 이후 계속 그의 선생이었다며, 언더우드를 '기독교 사역의 열정, 능력 및 인간적 태도에 있어 모든 개혁신교회에서 가장 전도가 유망한 청년'으로 평하였다.⁷¹⁾ 그리고 "그리스어 알파벳을 처음 배운 것이 1877년 1월 1일이었

67) Howard Crosby (Pine Hill, Ulster Co.), "Testimonial", (July 10th, 1884); George W. Coakley (Kempstead, Long Island), "Certification", (July 7th, 1884); Henry M. Baird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 "Testimonial", (July 3rd, 1884); I. M. Woodbridge (Dean of the Faculty),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July 5th, 1884); David D. Demarest (New Brunswick, NJ), "Certification", (July 5th, 1884); William V. Mabon (New Brunswick, NJ), "Letter to the Sec'y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July 3rd, 1884).

68) Thomas C. Easton (New Brunswick, NJ),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July 5th, 1884).

69) James A Blake (Brooklyn, New York), "Testimonial", (July 10th, 1884).

70) Henry N. Cobb (New York),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July 3rd, 1884).

는데, 반 년 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뉴욕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을 예로 들며 언더우드의 지적 능력을 극찬하였다.

한편 이스턴의 편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언더우드의 단점을 숨기지 않고 적고 있어, 언더우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그의 학식. 그는 빨리 배우며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는 모든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새로운 언어를 즉시 습득할 것입니다.

둘째, 그의 신앙심. 그는 영혼을 개종시키는데 열렬한 열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것을 목도했던 위대한 부흥회에서 그는 나의 가장 유능한 조력사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전도 사역을 사랑하며, 선교사로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셋째, 그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 그는 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빠르게 이해하며, 얻은 친구들을 유지합니다. 그는 인정이 있고 자비롭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상식이 풍부하여 곤경에 빠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으며, 어느 면에서나 선교본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그의 결점 및 약점. 그는 과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⁷²⁾ 그는 자신의 체력이나 지식 습득보다 더 복음 전도의 가치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교지로 들어가는 마당에 이 점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마지막 한 푼까지도 나누며, 자주 그가 주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도와줍니다.⁷³⁾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과 관련된 편지들은 1884년 7월 14일에 열린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 실행위원회에 제시되었다. 이 편지들은 관행대로 2주 동안 공람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누구도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⁷⁴⁾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은 7월 28일 개최

71) William V. Mabon (New Brunswick, NJ), "Letter to the Sec'y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July 3rd, 1884).

72) 과로하는 경향은 일에 몰두하면 다른 일을 잊어버리는 경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호튼은 언더우드의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일화로 '5달러 지폐를 찢었던 일'을 소개하였다.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p. 21-22.

73) Thomas C. Easton (New Brunswick, NJ),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July 5th, 1884).

74) 이 회의록에 적힌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H. G. Underwood - Application. A letter was presented from Rev. H. G. Underwood applying for appointment as a missionary and it was laid over."

PHS Minutes V.4~5, #322, H. G. Underwood - Application, (July 14th, 1884),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된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미국 북장로회의 해외선교사로 임명됨과 동시에 한국이 임지로 정해졌다.⁷⁵⁾ 이로서 언더우드가 미국 북장로회 최초의 한국 파송 목회선교사로 임명되었는데,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과 임명은 예외적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3) 언더우드의 내한 과정

당초 언더우드는 의료선교사 해론과 짝을 이루어 한국으로 파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883년 10월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의료 선교사 알렌이 1884년 6월 9일자로 한국행을 지원했고, 선교본부는 7월 20일경 이를 허락하는 전보를 보냈다.⁷⁶⁾ 이로서 언더우드의 짝은 해론이 아닌 알렌으로 변경되었다. 이어 9월 8일 개최된 해외선교본부 실행위원회는 알렌을 한국 선교부로 이적시킴으로써 ‘한국 선교부’가 탄생하였다. 상하이로 떠난 알렌은 부산을 거쳐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한 이후, 가족을 데리고 정착함으로써 첫 정주(定住) 선교사가 되었다. 당시 선교본부는 알렌이 ‘분명 병원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여러 공사관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사로서도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더우드는 일본에 머물며 한국어 배우다가 알렌이 기반을 잡으면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한국으로 떠나 앞서 언더우드는 형제들의 권유로 1884년 여름 영국을 방문하여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왔다.⁷⁷⁾

하지만 선교사로 임명 받은 언더우드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아직

75) 이 회의록에 적힌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H. G. Underwood - Appointment Confirmed & Assigned to Corea. The application of Mr. Horace G. Underwood for appointment as a missionary of the Board, which had been presented at the last meeting,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Letters commendatory of Mr. Underwood and recommending him warmly to the Board, were presented from the following persons, Rev. Wm. V. Mabon, D. D. of July 3rd/ 84, Rev. H. M. Baird, D. D., of New York University, of July 3rd, Rev. H. N. Cobb, of July 3rd, Rev. J. C. Eastern of New Brunswick, N. J., of July 5th, Rev. Howard Crosby, D. D. of July 10th and J. A. Blake, M. D. of July 10th.

Mr. Underwood was appointed by the Board as a missionary and assigned to the Korean Mission.”
PHS Minutes V.4~5, #324, H. G. Underwood - Appointment Confirmed & Assigned to Corea, (July 28th, 1884),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76) Horace N. Allen(Shanghai), “Letter to Frank F. Ellinwood”, (July 22nd, 1884).

77) Lillias H. Underwood, 앞의 책, 1918, pp. 36-37.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언더우드는 11월 3일 버겐노회(Classis of Bergen)로부터 강도사(Licentiate) 자격을 받았고, 11월 14일 뉴브런즈윅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저지 시(市)의 장로회 노회로 적이 변경되었다.⁷⁸⁾ 이로서 언더우드는 화란개혁교회 소속이 아닌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목사가 되었다.

당시 미국 북장로회는 목회자의 경우 '노회의 추천이 없이는 어떠한 목사도 해외 선교지로 파송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언더우드는 12월 2일 열린 저지 시(市) 노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해외 선교에 나서게 된 동기 등을 설명하고, 노회 총무로부터 추천을 받았다.⁷⁹⁾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 뉴욕에서 시카고를 향해 떠났는데, 이때 형 존 T. 언더우드가 동행하였다. 형이 뉴욕으로 돌아간 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에서 언더우드는 12월 22일자로 동생 헬렌에게 편지를 보냈다.⁸⁰⁾

결국 언더우드는 12월 말경 미국을 떠나 다소 험난한 항해 끝에 1885년 1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헵번(James C. Hepburn, 1815~1911) 선교사의 집에 머물던 언더우드는 3월 26일 요코하마를 출발했고, 4월 2일 부산을 거쳐, 5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언더우드에 관해 적지 않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음에도 정작 그의 집안 배경, 교육 배경 및 선교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자료가 반복되어 인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제한된 자료는 바로 1909년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언더우드가 자신의 내한과 관련하여 회고한 것과, 언더우드의 사후 부인 호튼이 저술한 *Underwood of Korea*에 포함되어 있는 언더우드의 집안 배경을 말한다.⁸¹⁾

78)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Convened at Orange, N. J., May 5, 1885*, Somerville, H. J.: The Unionist-Gazetteer Printing House, 1885, p. 25.

79) Edwin A. Bulkley (Stated Clerk, Presbytery of Jersey City), "Attest", (Dec. 1884).

80) 『언더우드 자료집 V』에 의하면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이날은 언더우드가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시카고를 떠난 날 혹은 뉴욕을 떠난 날인 것으로 추정된다. Horace G. Underwood (On Train), "Letter To Helen M. Underwood", (Dec. 22nd, 1884) :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V』,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 Horace G. Underwood (Yokohama), "Letter to Frank F. Ellinwood", (Jan. 26th, 1885).

81) 맺음말에서는 이 두 자료에 대한 각주를 생략하였으며, '언더우드의 회고', '호튼에 의하면' 등으로

내한 이전 언더우드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점을 몇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첫째, 언더우드의 생모 및 계모와 관련된 측면이다.

호튼이 기술한 바와 같이 화를 내거나,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일이 적지 않았고 친척들이 생전의 그녀를 매우 칭찬했으며, 1851년 총인구조사 당시 직업이 독어 및 불어 교사로 상당한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언더우드의 생모는 '현모양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계모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생모를 잃은 언더우드가 계모가 들어온 후 형과 함께 프랑스의 기숙학교로 보내졌다는 설명이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그러나 생모 못지않게 계모도 언더우드 집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있다. 언더우드의 아버지 존은 이민을 결심하고 1872년 가족을 영국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영국에 남아있던 나머지 가족들을 1년 동안 보살핀 것은 바로 계모였다. 계모는 자신이 낳은 앤, 그리고 존 T., 헬렌, 프랑스에 유학 중이던 호러스와 프레데릭을 챙겨 1873년 미국으로 건너갔다.⁸²⁾ 그런데 계모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다른 점들이 발견되는데, 바로 종교적 배경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1874년 12월 5일 남편 존, 존 T., 프레데릭, 호러스, 그리고 헬렌이 그로브개혁교회에 적을 올릴 때 계모는 빠졌고, 사후 그로브개혁교회의 묘지에 묻히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계모가 화란개혁교회의 교인이 아니었던 점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왜 호러스와 프레데릭이 프랑스의 가톨릭 기숙학교로 유학을 갔을까? 입증하는 자료는 없지만 계모가 가톨릭 신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가톨릭 신자였던 계모는 호러스와 프레데릭을 런던에서 매우 가까운 프랑스의 불로뉴 쉬르 메르로 유학을 보냈고, 또한 화란개혁교회로 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그로브개혁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튼으로서의 개신교 목사인 언더우드에게 관해 기술하면서 굳이 종교적 배경이 다른 계모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둘째, 언더우드의 교육과 관련된 측면이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목사 및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호러스는 아버지의 배려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다. 영

표시하였다.

82) 언더우드는 1873년 3월 3일 뉴욕항에 도착했음에도 북장로회에 제출한 서류에 1872년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Year: 1873: Arrival: New York, New York* : Microfilm Serial: M237, 1820-1897 : Microfilm Roll: Roll 372 : Line: 5 : List Number: 156 ; Horace G. Underwood, "Biographical Record", (Nov. 23rd, 1892).

국에서는 콕스 공립학교를 다녔고, 미국 이민 전에는 프랑스 불로뉴 쉬르 메르의 가톨릭 기숙학교를 다녔다. 미국으로 이민한 직후에는 형제들 모두가 정원사일, 가사 및 잉크공장 일 등 가계를 위해 일을 했지만, 아버지는 언더우드를 저지 시(市)의 명문학교인 헤스브룩학원에 보내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그로브개척교회의 신자가 되면서 담임목사 메이본으로부터 그리스어를 사사 받는 등 언더우드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언더우드가 뉴욕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의 교육열과 메이본 목사로부터의 사사 뿐 아니라 당시 뉴욕대학교는 등록금이 무료였던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더우드는 특히 웅변에 남다른 재질을 보여 3학년 때 웹스터 웅변상을 받았으며, 졸업식에서는 10명의 연설자 중 한 명으로 연설하였다. 또한 필로머시언 소사이어티의 편집인 및 부회장, *The University Quarterly*의 편집인, 델타 업실론 사교클럽(Delta Upsilon Fraternity)의 회원 등 기존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뉴욕대학교의 '훌륭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화란개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언더우드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언더우드가 입학하던 해에 신학교 교수로 부임한 메이본 목사와, 언더우드가 다니던 뉴브린즈윅 제1개척교회의 목사 이스턴이었다. 언더우드를 뉴욕대학교, 이어 신학교로 이끈 것이 메이본 목사였다면, 언더우드의 잠재된 전도 능력을 개발시켜준 것은 바로 이스턴 목사였다고 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이스턴을 도와 각종 부흥회에 참석했고, 2학년을 마친 여름 방학에는 담임 목사가 없었던 폼프톤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담임 목사 이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셋째,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과 관련된 측면이다.

언더우드가 가졌던 이상인 '연합'은 그가 선교사로 자원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자애로운 디에 교수를 통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 대한 일종의 포용과 너그러운 감정을 갖게 되었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아버지를 따라 화란개척교회로 적을 옮겼으며, 신학교 재학 중에는 주위의 염려에 개의치 않고 구세군을 따라 전도 활동에 나선 경험이 있었다. 이런 바탕 하에 언더우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이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국 북장로회의 선교사로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 1909년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 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자신의 한국행에 관해 회상했던 언더우드의 글은 자신의 선교사 자원 편지에 담긴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럴 경우 어떤 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작성된 문건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언더우드의 회고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1) 그가 한국을 알게 된 것이 1882~3년 겨울 울트만스의 강연을 통해서였고, 2) 4살 때부터 선교사가 될 생각과 함께 인도의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한 이후 신학교에 재학 중에도 자신은 인도에 소명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3) 이를 준비하기 위해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했고, 4) 1년이 지나도 아무 교회도 한국 선교에 나서지 않고 지원자도 없는 상황에서, 5) 갑자기 '너는 왜 못 가느냐?'는 생각이 떠올랐고, 뉴욕 시 협동개혁교회의 목회 요청을 수락하는 편지를 보내기 직전 '아무도 갈 사람이 없구나'하는 소리를 들은 후, 다시 방문했던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더우드의 회고를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위의 다섯 항목을 다시 분석해 보자.

1) 울트만스의 강연: 울트만스가 화란개혁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1883년 9월이었다. 그러므로 1882~3년 겨울이라는 연도에 관해 언더우드의 회고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883~4년 겨울이라면 다소의 설득력은 있어 보인다.

2) 인도와 관련된 문제: 언더우드가 인도에 소명이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적다. 우선 미국 북장로회의 경우, 지원자가 희망하는 사역지, 신앙 경력, 선교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 등을 선교본부에 알리도록 했다. 그런데 1884년 7월 10일자 언더우드의 지원 편지에는 '4살 때의 이야기'나 '인도에 소명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또한 개혁교회 선교본부는 '인도에 소명이 있다는 신념'으로 여러 준비를 해 온 언더우드를 중국 아모이(廈門) 선교부로 파송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두 번이나 언더우드가 자신을 한국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선교본부와 언더우드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을 텐데, 언더우드가 어느 선교지로 가고 싶은지 선교본부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교본부가 언더우드에게 '한국이 아닌 중국 아모이로 가되, 현재는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중국으로 조만간 파송하겠다'고 알렸다면 이해가 간다.

3) 의학 교육: 언더우드는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했다는데, 언제 의학공부를 할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언더우드는 1881년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화란개혁신학교에 입학하여 1884년에 졸업하였다. 그리고 졸업 직후 여름에 영국을 방문했으며, 12월 한국을 향해 떠났으므로 언제 1년 동안 의학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시기에 있어서도 언더우드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인도로 갈 준비로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했다고 했지만, 호튼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 언더우드에게 목회를 맡아 달라는 뉴욕 시 협동개혁교회의 조건이 언더우드의 의학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는 등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더욱 의학을 배웠던 언더우드가 내한 직후 개원한 제중원에서 알란의 수술을 돕다가 피를 보고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되어 결국 약 조제를 도왔다는 사실에서, 언더우드가 의학교육을 받았는지 혹은 받을 예정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다른 교회의 한국 선교 개시: 화란개혁교회에 속한 언더우드는 장로회나 감리회의 한국에 대한 선교 계획에 대해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북장로회의 경우, 일본에서 활동 중인 북장로회의 선교사 녹스가 이미 1883년 이수정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 소식을 접한 엘턴우드가 한국 선교 개시를 위해 취했던 조치 등을 언더우드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한국 선교부의 개설을 위해 마킨드의 유산 5천 달러를 기부했던 맥윌리엄스와 언더우드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존이 사망한 후 존 T., 프레데릭 및 헬렌 등 언더우드의 형제자매들은 뉴욕의 브루클린으로 이사하면서 라파엣 가(街) 장로교회로 적을 옮겼는데, 이 교회의 핵심적인 평신도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맥윌리엄스였다. 그런데 언더우드의 형제자매가 적을 옮긴 것이 1885년 11월 8일이었으므로, 언더우드의 선교사 임명과 맥윌리엄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이런 인연으로 언더우드의 장례식이 이 교회에서 거행되었던 것이다.

5) 언더우드에게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길은 없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선교사 지원 편지에서 이수정의 호소가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였다. 이수정의 호소는 맥윌리엄스뿐만 아니라 언더우드를 한국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임명 이후 언더우드의 내한 과정과 관련된 측면이다. 언더우드가 7월 선교사로 임명 받은 이후 안수를 기다리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임명된 헤론은 뉴욕대학교에서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헤론은 언더우드가 일본에 체류해 있던 1885년 1월 뉴욕의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뉴욕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따라서 헤론과 언더우드는 뉴욕대학교의 동문이 되었다. 언더우드가 한국을 향해 떠난 날짜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카고까지 동행해주었던 형 존이 뉴욕으로 돌아간 후 언더우드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에서 동생 헬렌에게 12월 22일자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12월 16일은 언더우드가 뉴욕을 떠난 날 이거나, 혹은 시카고를 떠난 날로 추정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연구는 새로 발굴된 일차 사료에 근거하여 언더우드의 내한 배경 및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아직 찾지 못한 자료가 더 있을 것이고, 또 자료 해석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 도입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언더우드에 관해 극히 제한된 자료를 이용했던 기존의 연구를 넘어, 보다 명확하게 언더우드를 이해함으로써 130년 전 내한했던 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851 England Census*, (Elizabeth Grant Mair, Mar. 30th, 1851).
- 188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John Underwood, June 26th, 1880).
- 「고 원두우 목사의 행장」, 『기독신보』, 1916. 11. 15 (4면).
- 박형우, 「알렌의 의료 선교사 지원과 내한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0호, 2014, 193~220쪽.
- 박형우, 「헤론의 생애와 내한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2호, 2015, 151~181쪽.
- 백낙준, 『원두우 박사 소전』, 연세대학교, 1959.
-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 이덕주, 『스크랜틴』, 공옥출판사, 2014.
- 이만열, 「선교사 언더우드의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4호, 2001, 9~46쪽.
- 이만열,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 V』,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2010.
- 이선호, 박형우, 「1880년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지침서에 대한 연구」, 『신학논단』 제71집, 2013, 275~303쪽.
- 이선호, 박형우,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의료선교사 지원과 내한 과정」, 『역사와 경계』 84집, 2012, 147~170쪽.
- A General Catalogue of the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s of Arts and Science*, D. O Crawford & Co., No. 62 Fulton Street, 1882, p. 55.
-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Rutgers College, New Brunswick, N. J., 1881-'82*, pp. 7, 35.
-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Rutgers College, New Brunswick, N. J., 1882-'83*, 1882, p. 7.
-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Rutgers College, New Brunswick, N. J., 1884-'5*, 1884, p. 46.
- Catalogue of the Officers and Students of the Theological Seminary of the Reformed (Dutch) Church in America, New Brunswick, N. J. 1881~'82*, J. Terhune's Press, 31 Albany Street, 1881.
- Catalogue of the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 1876~77. June, 1877*, Richard

- Handy, Printer, 62 and 64 Duane Street.
- Class Merit Book, July 1835~June 1888*, Vol. 4, New York University.
- Commencement Week, 1881*.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York.
- David D. Demarest (New Brunswick, NJ), "Certification", (July 5th, 1884).
- Edwin A. Bulkley (Stated Clerk, Presbytery of Jersey City), "Attest", (Dec. 1884).
- England, Select Births and Christenings, 1538~1975*, (John Mair, Oct. 27th, 1792).
- England, Select Marriages, 1538~1973*, (Thomas Underwood, Feb. 6th, 1817).
- George W. Coakley (Kempstead, Long Island), "Certification", (July 7th, 1884).
- Henry M. Baird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 "Testimonial", (July 3rd, 1884).
- Henry N. Cobb (New York),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July 3rd, 1884).
- Henry N. Cobb, *Century of Missions in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1796~1896*. Board of Foreign Missions, Reformed Church, New York, (ca. 1896), p. 16.
- Horace G. Underwood, "Biographical Record", (Nov. 23rd, 1892).
- Horace G. Underwood (Yokohama), "Letter to Frank F. Ellinwood", (Jan. 26th, 1885).
- Horace G. Underwood (On Train), "Letter To Helen M. Underwood", (Dec. 22nd, 1884)
- Horace G. Underwood (New Durham, NJ),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July 10th, 1884).
- Horace G. Underwood, "Personal Record of Horace Grant Underwood", (Nov. 3rd, 1914),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 Horace G. Underwood, "Reminiscence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August 27, 1909*, pp. 97-110.
- Horace N. Allen(Shanghai), "Letter to Frank F. Ellinwood", (July 22nd, 1884).
- Howard Crosby (Pine Hill, Ulster Co.), "Testimonial", (July 10th, 1884).
- Howard J. Banker (Ed.), *The Underwood Families of America, Volume 2*, Press of the New Era Printing Company, 1913, p. 625.
- I. M. Woodbridge (Dean of the Faculty),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July 5th, 1884).
- James A Blake (Brooklyn, New York), "Testimonial", (July 10th, 1884).
- James Hay, *Memoir of the Rev. Alexander Waugh, D. D.*, 3rd ed., Robert Carter & Bro., 1851.
- James S. Gale, 「원두우 목사행장」, 『신학세계』, 1916.

-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Fleming H. Revell Co., 1918.
- London, England, Marriages and Banns, 1754~1921*, (Elizabeth Grant Mair, July 26th, 1855).
- Matriculation Book, 1853~1893*, Vol. 2, New York University.
-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Convened at New Brunswick, May 1, 1883*, The Unionist-Gazette Printing House, 1883, p. 31.
-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Convened at Warwick, N. Y., May 6, 1884*, The Unionist-Gazetteer Printing House, 1884, p. 29.
-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Convened at Orange, N. J., May 5, 1885*, Somerville, H. J.: The Unionist-Gazetteer Printing House, 1885, pp. 25, 32.
- Mrs. Horace G. Underwood, "Horace Grant Underwood - Missionary, A Sketch of His Life and Work for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39, 1916, pp. 903-910.
- PHS Minutes V.4~5*, #322, H. G. Underwood - Application, (July 14th, 1884),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 PHS Minutes V.4~5*, #324, H. G. Underwood - Appointment Confirmed & Assigned to Korea, (July 28th, 1884),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 Record of Grove Church Cemetery*.
- Rijutei, "Rijutei to the Christians of America, Greeting," *The Missionary Review*, 1884, pp. 145-146.
- Theodore Francis Jones, *New York University, 1832:1932*, Th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33, pp. 139-140.
- Thomas C. Easton (New Brunswick, NJ),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July 5th, 1884).
- 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 Catalogue and Announcements 1884-1885*, May 1885, p. 46.
- William V. Mabon (New Brunswick, NJ), "Letter to the Sec'y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July 3rd, 1884)
- Year: 1873: Arrival: New York, New York: Microfilm Serial: M237, 1820~1897 : Microfilm Roll: Roll 372 ; Line: 5 ; List Number: 156.*

투고일: 2015. 5. 8

심사일: 2015. 6. 12

게재확정일: 2015. 6. 18

<Abstract>

The Study on the Coming to Korea of Rev. Horace G. Underwood as a Clerical Missiona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k, Hyoung-Woo*

By analysing newly discovered primary materials, the familial and educational backgrounds, and the appointment as a missionary to Korea of Horace G. Underwood were reexamined.

Newly discovered facts are as follows:

First, about his biological mother and stepmother. His stepmother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Underwood family after John's left in 1882.

Second, about educational background. Admission of Horace to NYU may have been possible due to support from people around him, such as his father, who had a passion in his son's education, from valuable teaching by his pastor Mabon, and from NYU's free tuition policy at the time. There are two peoples who were very important to Underwood regarding the 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Rev. Mabon and Thomas C. Easton, a pastor of the New Brunswick First Reformed Church.

Third, about Underwood's application for missionary to Korea. This study raises the following five questions. 1) What was the exact date when Underwood first recognized Korea? 2) To which field Underwood had prepared to become a missionary? 3) Did Underwood study medicine for a year? 4) Whether Underwood had been fully informed about the plan for Korea of other denominations? 5) The influence of Rijutei's appeal to the American church.

* Professor of Departments of Anatomy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 C I

Key Words: Horace G. Underwood, New York University, 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at New Brunswick, William V. Mabon, Thomas C. Easton, Albert Oltmans, Rijutei, Presbyterian Church, U. S. A., Dutch Reformed Church